

광주일보 11기 리더스아카데미... 남구 '어반브룩' 서 원우의 밤 및 기념공연

트롬본·재즈의 '촉촉한 선율' 회원들 심금 울렸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배상수 원우회장 등 100여명 참석 트로스 앙상블·재즈밴드팀 공연... 11일 MC 서경석 강연

시원하게 뿜어내는 금빛 관악의 울림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휘감았다. 때로는 감미롭게, 때론 경쾌하게 울리는 트롬본의 매력적인 선율은 촉촉하게 내리는 봄날의 비와 함께 모두의 감성을 적셨다.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임암동 복합 문화공간 '어반브룩'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11기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의 밤 및 기념공연을 찾은 이들은 그동안 몰랐던 트롬본이라는 악기의 매력에 빠져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과 배상수 원우회장 등 11기 원우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광주일보의 한 가족이 된 원우들을 축하하고,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무대는 트롬본 연주자들로 구성된 '트로스 앙상블'과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을 비롯한 재즈밴드팀의 공연으로 채워졌다.

트로스 앙상블은 트롬본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기 위해 2018년 광주시립교향악단 서용일 상임수석 필두로 광주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트롬본 연주자들이 모여 만든 팀이다. 매년 정기연주와 기획연주 등을 통해 청중에게 다가가 연주자와 청중이 공감하는 '연주의 장'을 만들고자 결성됐다. 테너 트롬본 서용일·이상현·김의찬·홍성환, 베이스 트롬본 고재현 등 5명으로 구성됐다.

MC 최형욱의 소개 이후 무대에 오른 트로스 앙상블은 첫 연주로 비틀즈의 '렛 잇 비'(Let It Be)를 선보였다. 풍성하면서도 부드럽고, 웅장하면서도 폭발적인 음색을 가진 트롬본의 선율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신해철의 '그대에게'와 함께 가수 이문세의 노래를 엮은 메들리를 연주했다.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 드럼 신지용, 베이스 전사무엘의 연주도 곁들여지면서 더욱 풍성한 무대가 만들어졌다.

다음은 재즈밴드와 보컬 김다슬이 무대에 올랐다.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김다슬은 재즈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곡인 '플라이 미 투 더 문'(Fly Me To The Moon)을 선보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뒤이어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날과 어울리는 곡으로 영화 라라랜드 OST '어너더 데이 오브 썸'(Another Day Of Sun)을 풍부한 목소리로 표현했다. 중간중간 드럼과 재즈피아노의 솔로 연주는 감탄을 자아냈다.

바통을 이어 받아 트로스 앙상블은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를 연주했다. 베이스 트롬본 고재현은 묵직한 저음의 연주로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마지막 곡은 '마이 웨이'(My Way)로 트로스 앙상블과 재즈밴드, 보컬 모두가 합주를 선보였다. 무대는 끝났지만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앙코르 요청으로 채워졌다.



트로스 앙상블과 재즈밴드팀이 공연을 하고 있다.

이, 이들은 다시 무대에 올라 MIKA의 '해피 엔딩'(Happy Ending)으로 이날 공연을 마쳤다. 노래 제목처럼 행복한 마무리였다.

광주일보 제11기 리더스 아카데미 다음 행사는 오는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개그맨이자 MC인 서경석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 권일용과 자타 공인 국내 최고 마술사 이은결, 미술사학자 양정무, 러시아 전문가 류한수, 물리학자 김상욱, (사)이태석재단 이사장 구수환 등 국내 유명 강사진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며, 음악·문화 공연과 해외연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제11기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의 밤 및 기념공연 이후 원우들과 공연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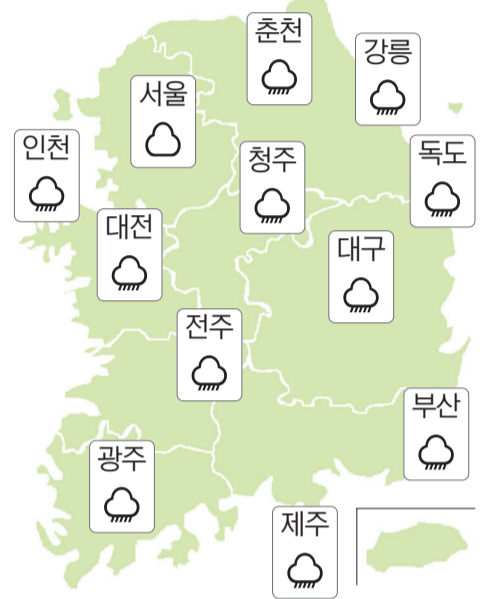
해돋이	06:13	달뜨기	19:05
해지기	18:57	달지기	06:16

우산 챙기세요

바람 강하게 불고 비가 조금 내리겠다.

광주	비	10/13	보성	비	7/14
목포	비	9/12	순천	비	8/15
여수	비	10/14	영광	흐림	9/13
나주	비	8/13	진도	비	9/14
완도	비	10/14	전주	비	10/13
구례	비	8/14	군산	비	9/12
강진	비	9/13	남원	비	8/13
해남	비	9/14	축산도	흐림	9/13
장성	흐림	8/14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0~2.5	1.0~2.0		
	면바다(북)	1.5~3.5	1.5~2.5		
	면바다(남)	1.5~3.5	1.5~2.5		
남해서부	앞바다	1.5~3.0	1.0~2.0		
	면바다(서)	1.5~3.0	1.5~2.5		
	면바다(동)	2.0~4.0	1.5~2.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7	02:19	19:52	14:35
여수	03:11	09:24	15:20	21:43

◇ 생활지수

감기	천식	미세먼지
위험	위험	좋음

◇ 주간 날씨

7(금)	8(토)	9(일)
☀	☀	☀
6/16	3/15	4/19
10(월)	11(화)	12(수)
☀	☀	☀
6/21	11/21	10/21

양승빈 호원 전무이사, 31사단에 위문금 전달



양승빈 (주)호원 전무이사(오른쪽)가 5일 31사단 제68주년 창설기념을 맞아 개최된 '31사단(주)호원아름다운 동행'에서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31사단 제공>

전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새맘길심리교육치료센터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위탁 운영 중인 전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센터장 이건영)는 최근 새맘길심리교육치료센터(센터장 주정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생활 게시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6일 (음 윤2월 16일 甲午)

☎ 010-9790-8237

화축

▲송석기·김남영씨 차남 진민(번호사)군,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황정란씨 장녀 수연(번호사)양=4월 15일 낮 12시30분 하우스 오브 드레르(신관) 1층 지젤홀.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에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子	36년생 겹모습만 달리하고 있을 뿐 내면은 차이가 없다. 48년생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60년생 뜻밖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수다. 72년생 떠나려는 이를 붙잡지 말 것이며, 찾아오는 이를 막지 말라. 84년생 과감한 판단이 길성을 부른다. 96년생 규모보다는 짜임새와 실리에 치중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4, 65
丑	37년생 떠단은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49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넘어가도 된다. 61년생 소폭적인 진전이지만 의미는 있다. 73년생 뚜껑을 열어 보면 실망할 것이다. 85년생 안배를 잘 한다면 부가적 이익도 따를 것이다. 97년생 종교적으로는 상호 이해 관계에 불착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52
寅	38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달이 될 것이다. 50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산적이다. 62년생 당연시하여 왔던 것 속에 의외의 맹점이 있다. 74년생 억지로서는 아니 되는 법이니 무리 없는 양상으로 이끌 필요가 있느니라. 86년생 순리대로만 처리한다면 무난하다. 98년생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2, 62
卯	39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51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63년생 시작은 힘들더라도 종교적으로는 수월해지리라. 75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임을 감안해야겠다. 87년생 가변적인 상황이니 탄력적으로 대처하라. 99년생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7, 73

辰	40년생 꼭 준수해야 남패를 보지 않으리라. 52년생 여러 사람들로 부터 각광받게 되는 날이다. 64년생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76년생 지속적이라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88년생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00년생 표면적인 현상으로는 판단한다면 들이킬 수 없는 번고를 낳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85
巳	41년생 우선 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야겠다. 53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65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알찬 결과를 보인다. 77년생 사전에 대비를 잘 해두어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89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는 법이니 소박함에 정성을 다하라. 01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98
午	42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동반하고 있다. 54년생 구상만 잘한다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다. 66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78년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생기느니라. 90년생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만 하느니라. 02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4, 56
未	43년생 지장을 줄 만한 하자가 보인다. 55년생 꽃망석에 앉아서 호강하겠다. 67년생 변화를 추구한다면 발전되는 양상을 띠다. 79년생 내용물은 내버려 둔 채 외형만으로 인식하다가는 큰 일나게 된다. 91년생 개념의 혼란이 생기고 산만해지기 쉬우니이다. 03년생 유종의 미가 종허니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84

申	44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을 늦추지 말라. 56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68년생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몸이 당황하는 모양이다. 80년생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빈틈이 보인다. 92년생 소모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04년생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0, 86
酉	45년생 과격적인 방도로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다. 57년생 어려운 상황 뒤에 길사가 이어질 징조이다. 69년생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성과를 도출하겠다. 81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93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05년생 일시적으로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7, 78
戌	34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살펴야만 한다. 46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 58년생 적절한 연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70년생 숙원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82년생 일시적인 반목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94년생 당연시해 왔던 것 속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59
亥	35년생 제반 사항을 아우르며 매끄럽게 도모한다면 실속이 있을 것이다. 47년생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59년생 전문가를 만나야 속 시원한 해결을 본다. 71년생 인식하였다면 즉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83년생 소소한 것은 차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하라. 95년생 일반적인 방법의 채택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24, 88